

지역학 개념의 범주 및 연구 필요성

- 의성학 연구의 기본방향 및 전략과제 -

조 광 식¹⁾

■ 목 차

I. 지역학 개념의 범주 및 연구 필요성

1. 지역학이란?
2. 지역학 연구의 필요성
3. 지역학의 연구 방향
4. 지역학 연구의 특성

II. 의성학 연구의 기본방향 및 전략과제

1. 의성학의 개념 정의
2. 의성학 연구의 기본방향
3. 의성학 연구의 실천 방향
4. 의성학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제

1) 행정학박사
CHO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I. 지역학 개념의 범주 및 연구 필요성

1. 지역학이란?

1) 지역학(學)의 정의

지역학은 통상적으로 ‘지역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이해되며, 특정지역의 지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민속 등을 탐구하는 학문적 활동이다.

- 어떤 지역이나 국가에 관하여 정치, 경제, 문화, 역사, 환경, 종교를 포함한 모든 것을 연구하여 축적한 논리 체계이며, 이를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식이자 학문이다(김승환, 2017).

- 인문과학, 사회과학 혹은 모든 지역의 성립 또는 그 곳 인간의 생업에 관하여, 어떤 지역의 전체 분석을 시도하는 학술 연구이다(하병주, 2007).

- 각 지방의 역사와 문화, 지방발전전략 등의 제반 문제를 학문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이규태, 2007).

- 장소의 이력을 기록하고 그 의미를 새기는 작업으로, 역사, 문학, 철학, 지리, 사회, 건축, 도시, 조경 분야의 학제 간 연구를 통하여 조명하는 ‘융합학’이다(송인호, 2012).

- 지역 및 공간과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학제적인(interdisciplinary) 학문이다(김학훈, 2014).

- 일정한 공간을 토대로 연구 대상을 설정하고, 종합적 또는 학제적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학문이다(박찬식, 2017).

2) 지역학의 학문적 속성

정정숙(2014)에 의하면 지역학은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여 지역의 미래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삼으며, 장소성, 특수성, 관계성, 정체성, 다양성의 속성들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달한다.

(1) 장소성: 특정 장소로서의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설정

(2) 특수성: 특정 지역의 특수하고 고유한 역사, 문화, 사회, 일상의 삶의 과거와 현재적 해석과 미래의 방향 도출

(3) 관계성: 해당 지역의 과거,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지향할 때, 지역주민, 주변 지역, 중앙의 입법·행정·사법권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고려 됨

(4) 정체성(identity): 연구의 결과는 지역 주민이 지역주민으로서의 고유한 지역

정체성을 인식, 강화 혹은 확대하는데 기여

(5) 다양성: 연구결과는 각 지역의 문화다양성을 보여주고 문화다양성을 풍부하게 함

3) 지역학 연구의 추세

- 지역학은 90년대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선시대 읍지(邑誌)가 지역의 수령이나 사대부 중심으로 간행되었으며, 근현대로 넘어오면서 ‘향토사 연구’ 등으로 이어졌는데,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관련된 자료를 발굴·소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 1980년대 후반 향토사 관련 연구회나 연구소 등이 설립되었으며, 이들은 주로 지역사회의 역사와 현안문제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때만 해도 지역학으로서의 체제는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 연구에 머물러 있었다.

- 지역사회 연구가 향토사 차원의 연구를 벗어나 ‘지역학’이라는 독립된 분과학문의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지방자치제도 도입과 관련이 있다. 지방정부차원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학술적 차원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가시화 되었다.

- 이런 배경에서 그동안 각 학문영역에서 개별적·고립적으로 이루어지던 지역연구가 ‘지역정체성의 발견’이라는 대주제 아래 총체적·통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지역이름을 표방한 ‘○○학’이 생기기 시작했다.

4) 지역학연구 대상

- 지역학은 국가를 주요연구 대상으로 하는 국제지역학과 한 국가 내부의 지역이나 생활권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국내지역학으로 구분되어 왔다. 하지만 주로 행정구역 단위(광역시·기초)로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마을(village), 지구(district) 등과 같은 소지역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노영순·이상열, 2018).

- 지역학 연구의 최근 흐름은 “타자에 의해 주어진 지역 구분에서 벗어나 장소로서의 지역, 공간으로서의 지역, 경관·문화·생태·언어·종교 등을 기준으로 한 지역 등 보다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지역 개념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양식, 2017).

2. 지역학 연구의 필요성

1) 지역정체성 확보와 문화공동체 형성

(1) 지역정체성(도시정체성) 확보에 기여

- 지역정체성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중앙과 지방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정체성 정립은 필수적인 이념적 준거
- 도시정체성은 급격한 변화를 겪어온 지역일수록 지역학은 더 필요성을 요청
ex) 용인시는 인구급증으로 도시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용인학’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2) 문화의 창의적 발전에 기여

- 지역학이 주로 다루는 지역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추출하는 과정은 미래지향적인 문화 발전 초석 마련의 토대로 작용할 수 있다.
- 기초연구를 통해 지역학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도시를 스토리텔링화 하는데 성공한 도시는 도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강원일보, 2018.7.13.).

2) 지역발전의 대안으로서의 지역학 연구

- 지역학의 효과는 지역에 대한 역사·문화·미래 비전의 숙지를 통해 주민의 자긍심을 북돋우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발전의 동력이 된다.
- 지역학 대중화는 주민의 애향심과 더불어 지역의 문화유산 및 문화콘텐츠 발굴을 촉진하고 관광자원 개발로도 이어진다.

3. 지역학의 연구 방향

1) 개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지역학

- 도시의 팽창과 쇠퇴, 재개발 속에서 상실되는 유·무형의 지역문화에 대한 재조명은 미래자산의 발굴로 이어진다.
- 지역학 연구를 통해 발굴된 일상생활의 경험과 기억, 구전, 설화 등은 스토리텔링 산업에 중요한 원천소스가 될 수 있다.

2) 공동체 회복을 위한 ‘참여형’ 지역학 : 로컬리티(locality) 기록학

- 지역학은 공동체의 기억과 문화를 복원하고, 기록하여 공유함으로써 소멸되는 공

동체성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로컬리티 기록화는 지역에 토대를 둔 행위 주체들의 다양한 활동과 이에 따른 지역의 변화를 보여주는 기록을 수집, 생산하는 작업으로, 지역과 공동체의 정체성과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려는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3) 지역의 활성화와 재생을 위한 ‘실천적’ 지역학

지역쇠퇴 현상은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심각하다.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워 무분별한 도시재생의 부작용을 막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깊이 고려해야하며, 여기에는 기록화 사업을 비롯한 지역학 연구가 앞서야 한다.

4. 지역학 연구의 특성

1) 지역적 특성

- 지역학의 특성상 해당 지역이 지니고 있는 역사·문화·지리·기후 등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며, 따라서 지역에 따라 구별될 수 있는 지역학의 특색을 확인할 수 있다.

-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에서 발간한 부산학 총서의 경우, 23권 중 20권이 근현대의 부산을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를 연구 주제로 삼고 있다.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학 연구센터에서 발간한 총서 역시 41권 중 3권이 근현대시기 울산을 다루고 있으며, 역사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충북학과 인천학, 경기학 또한 역사와 문화 분야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2) 연구 주체의 특성

- 지역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연구역량 또는 자원의 차이가 존재하며, 그에 따라 적절한 연구주체를 선정하고 있다.

- 지역학 연구는 연구 주체가 누군가에 따라서 접근의 차이를 보인다. 대체로 ‘지자체 출연 연구원’, ‘지역의 대학교’, ‘지역의 문화재단 혹은 문화원’이 주요 연구주체이며, 연구 주체에 따라 연구주제나 접근 방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 효율적인 지역학 연구를 위해서는 각 지역이 나아가고자 하는 지향점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지역의 연구 자원들의 활용이 중요하다. 즉 지역에 적합한 연구 주제

들을 선택하고 이에 특화된 연구 자원을 동원하여 동원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Ⅱ. 의성학 연구의 방향 및 전략과제

1. 의성학의 개념 정의

의성지역의 사회와 역사, 문화의 총체적 표현물을 대상으로 체계적 연구 분석을 통하여 의성인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의 당면과제 해결과 미래의 발전과정을 모색하는 학문적 논리를 제공한다.

2. 의성학 연구의 기본방향

1) 미래지향적 가치창조

- 의성학은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지만 지역의 과거 사실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역을 알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변화시키려는 미래지향적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의성학은 숨겨져 있는 문화자원의 새로운 발굴과 활용 가능성이 핵심 목적이 되어야 한다.

- 파상적 지표로 지역 간을 단순 비교하거나 특성을 단순 기술하는 것은 지양하고,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찾기 위한 ‘지역’ 중심적 태도가 필요하다.

-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 외부의 행정적 개입을 최소화하여 연구의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 인력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2) 의성학의 정책 활용 가능성

- 의성학은 학문적 차원을 넘어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 의성학’을 지향해야 한다. 군민들의 삶과 연관되는 공공정책 추진의 근거로서 위상을 가져야 한다.

- 의성학 연구는 기획단계에서부터 문화적 활용가능성을 고려하고, 다각적인 소통채널을 통해 연구를 공개하며, 연구 성과와 활용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 의성학 연구결과가 의성지역 주민들의 문화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주민들의 자긍심과 결속력은 높아지고, 주민 스스로가 문화적 주체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3) 주민참여

- 의성학 연구는 연구자 중심의 지역학이 가지는 한계를 탈피하고, 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참여하는 연구 체계가 필요하다.

- 의성학은 학문적 가치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재료가 되는 정신적 자원으로서 연구의 기획과 진행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연구의 결과물은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의성학이 지역 주민의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 의성학 연구는 과거에 대한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미래적 책무를 지니므로 주민들의 현장의 삶에 기반하여 주민과의 관계성을 중시하고,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지역학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3. 의성학 연구의 실천 방향

1)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 의성의 위기를 진단하고 의성이 가지고 있는 ‘농촌성’을 고민하며 이를 바탕으로 의성만의 문화정체성을 뚜렷하게 구축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 의성의 특성을 나타내는 자료의 수집과 치밀한 분석, 맥락적 해석이다. 기존 지역학에 대한 접근이 ‘학’을 내세운 학술행사에 치우쳐있다는 비판을 넘기 위해서는 사건, 사업, 행사를 나열하는 단편적 제시를 넘어 분석적이고 맥락적으로 지역학을 해석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 의성학은 역사·문화와 같은 한 가지의 접근이 아닌 다양한 분야로 융합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아울러 시사 편찬을 바탕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여 주민들의 지역 정체성을 고취하고,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누가 연구할 것인가?

-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지역학 연구기관과 연구인력을 주축으로 체계적 의성학을 정립해야 한다.

-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의성학 연구기관과 연구인력의 부족이다.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의성학을 정립해야 한다.

3)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의성학은 지역민이 살고 있는 일상생활 터전에서 이루어지기에 대중화 되지 않고서는 의성학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

- 의성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의성학을 재밌게 접근하여, 대중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이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SNS나 다양한 영상매체를 활용하고, 재미있는 소재를 개발해 지역학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 지금까지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이어지던 의성지역의 연구 관점을 ‘미래에서부터 현재’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꿔 차별화 된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지니는 의성군 구현에 기여해야 된다.

- 의성학은 지역민과 공유하고 확산할 때만 그 존재 의의를 가지므로 단순히 학문적 탐구의 대상에만 그치지 않고, 주민과 함께 지역 현안을 풀어내는 기초로 그 역할을 다 해야 한다.

4. 의성학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제

1) ‘의성학연구소’ 설립과 운영

- 의성학연구소 설립은 연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집약하는 구심점 형성으로 의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고, 의성의 다양한 문화원형에서 스토리를 찾아 스토리텔링 하여, 그 원천소스를 통해 문화콘텐츠 개발로 이어지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2) 의성학 연구의 플랫폼²⁾으로서의 역할

- 의성학연구소는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수준을 넘어 다양한 연구자 및 주

2) flat(편평한) + form(모습)은 ‘기차를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평평하게 만든 장소’를 말한다. 목적에 따라 ‘많은 사람이 쉽게 이용하거나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특징을 차용하여 말한다. 예컨대 기업에서 하나의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공간이 플랫폼이다. ex)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

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지원해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러 기초 자료 수집이 필요하고 관련 자료들에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카이브 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의성학 연구의 플랫폼으로서 ‘의성학연구소’는 자료의 연계뿐만 아니라 의성학을 연구하려는 연구 주체들을 지원하고 연구자들 간의 네트워크와 융합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 다른 분과학문과 달리 의성학은 주민의 삶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할 필요성과 의무가 있으며,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는 필수적이다.

- 주민 참여형 아카이브³⁾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이 기록 생산의 주체로 참여하는 주민기록과 양성이 필요하다.

4) 기초연구 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 의성학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초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연구 사업은 의성의 인문사회뿐만 아니라 경제, 지리, 자연과학, 건축, 경관 등 다 학제적 학문을 육성해야 한다.

5) 의성학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 의성학연구소는 주민들에 의해서 생산된 연구 성과물을 집대성하고 통합적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성학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의성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학회, 단체, 관공서, 개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생산한 의성학 관련 연구 성과물을 수집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6) 의성학 교재 및 학술지 발간

- 지역 주민들에게 의성학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지역학 교재 및 학술지를 발간하여 주민들에게 의성학이 무엇인지를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 의성지역 역사를 비롯하여 의성만의 특징적인 문화를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3) 아카이브(archives)란 ‘기록보관소’, ‘기록 보관소에 보관하다’란 의미이며 백업용 또는 다른 목적으로 ‘한 곳에 파일들을 모아둔 것’을 뜻한다.

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의성학 연구자뿐만 아니라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의성학개론’의 집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